

메시지 2  
교회생활 —

**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**

성경: 엡 1:10, 22-23, 3:15-21, 4:15-16, 고전 11:3, 딤후 1:4, 요 8:12

**I.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우주적인 머리로 세워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다 — 엡 1:10, 22.**

- A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이다 — 엡 1:10.
- B.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,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일 것이다 — 계 21:1-2.

**II.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— 롬 8:19-23.**

- A.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, 이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과 어둠이 되었다.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, 죽음은 어둠을 가져오며, 어둠은 혼란을 가져온다.
- B. 온 우주는 사탄이 죽음의 요인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주입함으로써 야기된 붕괴의 무더기이다 — 히 2:14, 롬 8:20-21.
- C.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창조물을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— 엡 1:22, 10.

**III. 우리는 모두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필요가 있다 — 골 1:12-13.**

- A.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야기된 우주의 붕괴는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실 뛰어난 기회를 주었다 — 엡 1:8, 3:10, 롬 11:33.
- B. 성경에 따르면,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에서뿐 아니라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— 엡 2:1-8, 21-22.

**IV. 교회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다 — 엡 4:15, 고전 11:3.**

- A.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,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— 고전 15:20-28.
- B.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,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 것이다 — 고전 11:3, 엡 1:10, 2:21-22, 4:15.
  - 1.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 — 엡 1:10.
  - 2.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, 우리는 교회를 알 수 없다.
  - 3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.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한다 — 엡 4:15.

- C.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인 그분의 아들들을 우주적인 붕괴에서 이끌어 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이다 — 엡 1:22, 4:15, 5:23, 골 1:18, 2:10, 19.
- D.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,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으신다 — 엡 1:22-23, 10.
  - 1.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,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— 엡 3:9-11.
  - 2.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이다 — 엡 1:22-23.

**V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분배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되고 있다 — 엡 3:15-17, 4:15, 딤편 1:4.**

- A. 신성한 경륜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— 딤편 1:4.
  - 1. 그리스도는 신성한 경륜이시다.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으로 신성한 경륜을 받아들였다 — 요 1:12-13.
  - 2. 신성한 경륜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행정과 안배와 계획인데, 이러한 신성한 경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.
- B. 하나님은 달콤한 분배이자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자 편안한 가정 안배인 그분의 행정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고 계신다 — 엡 1:10, 3:2, 딤편 1:4, 3:15.
  - 1.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는 것은 친밀한 청지기 직분에 의해, 즉 편안한 가정 안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— 엡 3:2.
  - 2.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길은 유쾌한 가정 행정, 곧 친밀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안 식구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— 딤편 3:15, 1:4.
  - 3.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.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위에 일하고 있는데, 이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— 엡 1:7-8, 10.
  - 4. 하나님의 유업인 우리가 살아 있는 도장이신 그 영으로 적셔질수록,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일이 우주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— 엡 1:11, 13.

**VI. 교회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과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— 요 1:4, 8:12.**

- A.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은 사탄과 대립되시는 그리스도,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, 어둠과 대립되는 빛, 혼란과 대립되는 질서이다.
- B. 붕괴는 죽음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되고,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— 겔 34:4-10.
- C.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— 롬 8:6, 10-11, 19-21.
- D. 붕괴의 무더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다.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우주적인 붕괴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— 엡 4:15, 골 2:19.

E.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,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.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,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— 요 1:4, 8:12, 엡 5:8-9.

1.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, 우리는 빛 아래 있고 빛의 능력으로 통제받는다.
2.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며,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심지어 빛 자체이다 — 요일 1:5, 요 12:36, 엡 5:8, 마 5:14.
3. 생명 안에서 또한 빛 아래서 우리는 혼돈에서 구출되고,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리며,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— 엡 1:10.